



콜텍 13년만에 복직!

길고 길었던 13년, 4,464일의 투쟁!

지부 내 장기투쟁사업장이자, 국내 최장기 투쟁사업장인 콜텍지회의 투쟁이 드디어 종지부를 찍었다. 금속노조와 콜텍 사측은 4월 22일 9차 교섭에서 복직과 합의금 지급에 합의했다. 김경봉, 임재춘, 이인근 3명의 조합원은 5월 2일부로 복직해 5월 30일 퇴직한다. 조합원 25명에 대해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콜텍지회 임재춘 조합원이 단식에 돌입한지 42일만의 합의였다. 노사 양측은 23일 오전 10시 조인식을 진행하며 모든 절차가 마무리했다. 김경봉, 임재춘, 이인근 조합원은 13년, 4,464일이라는 긴 시간을 투쟁하며 쌓인 회한이 스쳐간 듯,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콜텍투쟁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 만들어준 것은 모든 연대 동지들의 힘!

콜텍투쟁은 정리해고가 얼마나 손쉽게, 무분별하게 벌어지는지 사회적으로 알려냈다. 그리고 그렇게 손쉽게 행해진 정리해고가 노동자들의 삶을 어떻게 파탄내는지도 여실히 보여줬다. 42일간 단식투쟁을 했던 임재춘 조합원은 “13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다. 젊은 사람들이 다시는 이런 잔인한 세상에서 살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경봉 조합원은 “콜텍지회가 올바른 투쟁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함께 한 모든 동지가 고맙다”며 연대 동지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실제 콜텍지회의 투쟁은 전국의 수많은 연대단위가 없었으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 대전충북지부 모든 조합원들의 힘은 말할 것도 없다. 조합원들이 매월 지부결의금을 통해서 콜텍지회가 버티며 싸울 수 있는 힘을 만들어왔다. 그 결실이 콜텍 투쟁의 승리로 나타났다.

정리해고 없는 세상을 위해 한결음 더!

콜텍투쟁은 마무리됐지만 정리해고가 노동자의 삶을 파괴하는 현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콜텍지회 역시 정리해고로 인한 투쟁이 더 이상은 없기를 바란다면 정리해고 없는 세상을 위해 함께 싸우겠다고 밝혔다. 길고 긴 콜텍지회 투쟁은 끝났지만, 정리해고 없는 세상을 향한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